

「아시아 공동체와 소독론(素讀論): 에도 지식의 형성방식」

글쓴이: 黃美惠

번역: 강지훈

제 9 회 강연에서는 본교 외국어대학 서흥경 학장님의 특별 요청으로 일본 중부대학교(中部大學) 부총장님이시며 교토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쓰지모토 마사시 (辻本雅史)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쓰지모토 교수님은 교육사, 일본사상사 분야의 저명 학자이고 전문저술의 양은 소위 '著作等身' 이란 말 그대로 매우 풍부하십니다. 교수님의 연구성과를 예로 들자면 『근세교육사상사 연구¹』, 『'배움'의 복권(復權)²』, 『교육을 '에도'부터 생각한다-학습·신체·미디어³』, 『사상과 교육의 미디어史—근세 일본의 '앎'의 전달⁴』 등이 있으며 모두 일본 사상사 분야의 최정상 성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번 쓰지모토 교수님이 강의주제는 「아시아 공동체와 소독론(素讀論): 에도 지식의 형성방식」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교수님의 두터운 학술 성과를 기초로 에도 시대 지식인이 중국 한문 고전을 배울 때 소독(素讀)으로

¹ 『近世教育思想史の研究¹』, 思文閣出版, 1990 年

² 『'學び'의 復權²』, 岩波現代文庫, 2012 年復刊

³ 『教育を'江戸'から考える～學び・身體・メディア³』, 日本放送出版協會, 2009 年

⁴ 『思想と教育のメディア史—近世日本の知の伝達⁴』, ぺりかん社, 2011 年

만들어진 에도 유교의 지식 양상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강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한자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 모두 중국 한문 고전 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중국 고전 한문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하는 방법론은 해당국가의 학술 및 사상의 역사적인 발전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한문 고전이란 사서오경을 지칭하는 것이며 유교란 사서오경의 학문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 년 전의 인물인데, 그의 사상은 경전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졌기에 후세 사람들이 그 경전을 통해 공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300 년 전의 에도 시대 역시 경전을 읽고 공자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한문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쓰지모토 교수님이 에도의 유교의 공부법과 그 시대 지식의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고 밝히셨습니다.

일본은 중국 한문 고전을 읽을 수 없었기에 해당 텍스트를 일본 어법에 맞는 '한문훈독법'⁵으로 변환해서 한문을 읽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아이들이 약 7 살 무렵부터 공부를 시작해 2000 년 전부터 전해내려온 중국 한문 고전과 경전을 일본어로 훈독하여 소리내서 낭독했습니다. 어린 시절 중국 고전의 텍스트를 소리내어 송독하는 '소독'은 훈독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기초 학습법입니다.

⁵ 일본어 문법을 사용해서 한문을 읽는 방법

그렇다면 에도 시대 어린이 교육은 왜 중국 한문 고전을 배워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아이들의 엘리트 교육은 모두 경전을 소리내어 읽고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문으로 쓰이지 않는 글이면 학문적이지 못한 글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교육은 교토대 지리학과 오가와 타쿠치(小川琢治) 교수 삼형제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가와 교수 일가는 교토대와 도쿄대 교수로 어려서부터 '소독'으로 공부했습니다. 1949 년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교수는 바로 오가와 교수의 친동생으로서 역시 어렸을 때부터 소독으로 공부했습니다. 유카와 교수 본인의 말에 의하면 '소독'이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에도 시대 일본에서 '소독'은 모든 배움의 필요조건이며, 에도 시대 지식의 기초는 '소독' 공부에 의한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 근대 과학에 의한 '근대 지식'은 문자 사용을 기초로 한 근대 학교 교육에 의한 것입니다. 근대 학교에서 뜻조차 모르고 경전을 외우는 '소독'의 공부법이 부정되었습니다.

이어, 쓰지모토 교수님은 에도 시대에 학습용 한문 고전서를 취득하는 방법을 소개하셨습니다. '소독'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7 세기 전기에 일본이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조선에서 교과서를 수입했는데 그렇게 구해진 책을 박래서⁶(舶來書)라고 불렀습니다. 허나 이 표점 없는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게다가 박래서의 양이 적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특권을 가진 지식인들만

⁶ 해외에서 온 책이라는 뜻으로, 해외 서적을 지칭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과서의 출판은 과거지향적인 주자학 학습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자는 『사서』의 정확한 독해를 위해 『사서집주』를 집필했습니다. 17세기 전기에 일본지식인들이 이 명나라 집주(集註) 주해서(註解書, 즉 四書學)를 통해 주자학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주자학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주자가 주해한 사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고로 당시 17세기 학자들의 일이라면 이러한 중국 고전 텍스트를 읽기 편한 책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르러 수입해 온 교과서를 훈독을 붙혀 일본 현지에서 출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래서(舶來書)가 외래 서적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화각본(和刻本)이 일본 현지 출판본을 지칭하는 어휘입니다. 쓰지모토 교수님은 17세기는 일본 미디어(문자와 출판) 혁명의 시대라는 독자적인 학술 견해를 제시한 바가 있으나 오늘은 아쉽게도 시간관계 상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를 기대해야 겠습니다.

'소독'은 카이바라 에키겐(貝原益軒, 1630~1714)이 제시한 공부법입니다. 쓰지모토 교수님께서 카이바라 에키겐이 자신이 에도 시대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웃으며 농담하셨습니다. 카이바라 에키겐은 "젊은 시절 기억력이 좋을 때 자주 사서오경을 정독하고 횡수를 늘려 다 암기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사서를 하루에 100자를 100번 정독하고 묵독하면서 외워 쓴다", "사서를 모두 암송할 수 있다면 그 기초를 통해 의리(義理)를 통달하고 각종 책을 독해하는 것도 굉장히

⁷ 貝原 益軒 著 《和俗童子訓》 卷之三 中

쉬워진다.", "한문 글쓰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 " '사서'만 익히면 초학의 진도가 절반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益軒《和俗童子訓》卷之三). 사서의 글자수가 52,804 자입니다. 매일 100 자씩으로 계산하면 528 일, 즉 1 년 반에서 2 년 정도면 모두 암송할 수 있습니다.

'소독'의 텍스트는 유교의 원전이며 공자의 사상이 담긴 경전입니다. 소리를 내어 경전을 송독하면 나중에 경전의 텍스트를 보지 않아도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게 됩니다. 바로 경전의 내용을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쓰지못토 교수님은 "소독"을 "텍스트의 신체화(身體化)"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신성한 언어를 신체화하면 이러한 언어로 사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신체화한 텍스트는 일본은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신체화된 한문 경전으로 교류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마치 칸트가 라틴어를 서양 철학 사상을 전달하는 언어로 간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도 시대의 지식인들이 학문적 글씨를 쓸 때 늘 한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문으로 사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교는 경전의 언어로 사고하고, 한문으로만 전달 가능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인이 지식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소독' 공부가 에도 시대 일본인이 어릴 때부터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인 까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도 유교적 지식의 형성 방식은 처음부터 근대 학교와 다른 것입니다

현대 대학의 교육방식은 예외 없이 모두 유럽의 근대 지식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동아시아가 예전에 공유했던 유교에 근거한 지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근대 지식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숨겼습니까? 이는 우리가 현재 대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 "미디어 혁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 것이 현재 미디어의 발전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사용을 기본으로 한 근대 지식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양상에 대해 사색하기 위해서 근대 이전 '소독'에 의한 예도 유교적 지식 양상을 재조명하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